

## 제6실 | 회화 | 불화 전시해설

이번에 전시되는 12폭의 불화는

원래 불화사경첩 교차 병풍 2개에 붙어 있던 것을 다시 장황한 것입니다.

### N-3-1-1 쇼토쿠 태자와 다섯 신하 초상

천개 아래에 있는 태자를 3명의 승려와 소쿠타이(귀족의 정장) 차림의 두 사람이 둘러싸듯이 앉아 있습니다. 각각의 인물들에게는 네모칸 설명이 덧붙여져 있지만 글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리 전에는 결실된 부분에 고보대사상으로 추정되는 다른 그림에서 가져온 비단이 보충재로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 N-3-1-2 아미타 내영도

화폭 좌상단에서 아미타여래와 세 보살이 구름을 타고 와서, 극락정토로 떠나려는 죽음을 앞둔 이를 맞이하기 위해 내려오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구도와 아미타여래의 자세, 여래와 보살의 몸을 하얗게 칠한 점 등은 내영도가 정형화되기 이전의 옛 양식에 해당하는 요소입니다.

### N-3-1-3 석가 삼존과 십육나한도

머리 뒤로 후광이 비치는 석가가 연화 좌대에 가부좌를 하고, 좌우에는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있으며, 석가가 세상을 떠난 뒤에 불교의 법을 수호할 것을 명령받았다고 하는 십육나한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석가의 가사 등에는 금박을 잘게 재단하는 절금 기법으로 삼잎 무늬와 만(卍)자 무늬 등이 매우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 N-3-1-4, 3-2-1 부동명왕과 두 동자상

바다 위의 바위에 거친 모습의 부동명왕이 흰색 피부의 궁갈라동자와 붉은색 피부의 제타가동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부동명왕의 광배 윗부분에 격렬하게 타오르는 화염이 특징입니다.

### N-3-1-5 석가 삼존상

사자가 옆에 있는 육각형 대좌 위의 연화 대좌에는 머리와 등에 후광을 진 석가가 가부좌를 하고 있으며, 정면에서 왼쪽에는 지혜를 관장하는 문수보살이, 오른쪽에는 수행을 관장하는 보현보살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석가와 두 보살이 입은 옷의 무늬와 연꽃잎의 맥에는 금니(금과 아교를 섞은 안료)와 금박을 잘게 재단한 절금이 사용되었습니다.

#### N-3-1-6 애염명왕상

연화 좌대에 가부좌를 한 붉은색 피부의 애염명왕으로, 눈이 3개에 팔이 6개 있고 각 팔마다 물건을 쥐고 있는 삼목육비의 분노하는 형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아래쪽에는 연화 대좌에 올라가는 화염보주 등의 칠보가 흩뿌려져 있습니다.

#### N-3-2-2 미륵보살상

머리와 몸에 광배를 지고 연화 좌대에 왼쪽 다리를 내리고 앉은 미륵보살상을 표현하였습니다. 선명하고 생생한 채색으로 보아 제작 연대가 상당히 내려가는 것으로 추정되며, 에도시대 중에서도 막부 말기의 작품들과 비슷한 스타일이 느껴집니다.

#### N-3-2-3 문수보살상

정면을 향하여 큰 입을 벌린 위엄 있는 사자에 탄 문수보살을 묘사하였습니다. 어린 아이 같은 표정을 한 동자 형상의 문수보살은 머리 뒤로 빛이 나고 연화 대좌에 올라선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녹색과 갈색으로 억제된 채색 가운데 금니(금과 아교를 섞은 안료), 은니, 금박을 잘게 재단한 절금 등으로 장식이 이루어졌습니다.

#### N-3-2-4 천수관음과 이십팔부중상

천 개의 팔을 갖고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천수관음이 바닷속에서 튀어나온 바위에 서서 좌우 각 13체의 권속을 거느리고 있으며, 화폭을 바라보고 상단 오른쪽에는 우뢰의 신, 왼쪽에는 바람의 신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관음의 팔 개수는 중앙의 합장하는 손을 포함하면 42개로, 천 개의 팔을 40개의 팔로 대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색도 비교적 잘 남아 있는데, 이전에 수리할 때 덧댄 종이에 28부중의 존명이 먹글씨로 적혀 있는 쪽지가 확인되었습니다.

#### N-3-2-5 아미타 삼존 내영도

아미타여래와 관음보살, 세지보살이 구름을 타고 죽은 이를 맞이하러 오는 장면을 표현하였습니다. 여래의 육신과 옷 등은 금니(금과 아교를 섞은 안료)로 칠해졌고, 머리의 후광은 금박을 잘게 재단한 절금으로 선을 나타내고 금니로 바림하여 제작 당시의 화려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N-3-2-6 석가여래상

연화 대좌에 가부좌를 한 석가여래를 나타냈습니다. 석가는 머리와 몸에 후광을 얹었고, 몸에 두른가사는 주홍색 바탕에 금니로 번개무늬를, 연화 대좌의 윤곽과 꽃잎의 맥에는 금박을 두껍고 거칠게 재단한 절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육각형 대좌에도 명암 표현과 입체 표현의 일종인 운간 채색과 금니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 제6실 | 염직 | 촉강금 옥과 능직비단 변죽

촉강금(蜀江錦)은 나라 호류지에 전해지는 아스카시대의 대표적인 비단 중 일부를 가리킵니다. 붉은색을 베이스로 하는 색이 선명한 비단이며, 오늘날에도 다도구와 띠, 넥타이 등 다양한 염직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 비단은 경금(經錦)이라고 하여 여러 색으로 물들인 날실을 띄우거나 내려서 무늬를 나타내는 기법으로 직조되었습니다. 이는 고훈시대부터 아스카시대까지 행해진 오래된 기법으로, 나라시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울러 다양한 무늬를 직조하여 나타낸 능직비단 변죽을 전시합니다. 아스카부터 나라시대에 이르기까지의 화려한 염직 미술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 N-43: 촉강금 요 조각

바닥 등에 까는 데 쓰이는 촉강금입니다. 선명한 적색 바탕에 연속된 육각형 무늬를 배치하고 육각형 안에 꽃과 새, 개 등의 동물 무늬를 넣었습니다. 고대의 금(비단)은 같은 무늬를 반복하여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 작품의 경우 가로 한 줄의 무늬에 같은 것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참고】 변죽이란?

번(幡)은 불상의 머리 위나 불당 안팎에 걸어놓는 깃발을 말합니다. 형태는 사람의 몸처럼 생겼는데, 머리에 해당하는 번두(幡頭), 몸통에 해당하는 번신(幡身), 발에 해당하는 번족(幡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변죽은 띠 모양의 여러 개의 천조각을 겹치지 않게 드리워서 바람에 휘날리도록 만들었습니다.

### N-319-61-2: 적색 바탕 평직비단 변죽 조각

### N-319-63-1: 적색 바탕 평직비단 변죽 조각

### N-319-102-3: 적색 바탕 평직비단 조각

너털너털한 조각으로 변해버렸지만, 그 색채는 염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처럼 선명합니다. 붉은 염료는 특히나 퇴색되기 쉬운데, 이처럼 색이 잘 보존된 것은 경이롭습니다. 얼마나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공을 들여 염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N-319-75-1: 황색 바탕 산무늬 능직비단 변죽 조각

### N-319-87-1: 옅은 황록색 바탕 산무늬 능직비단 변죽 조각

호류지에 있었던 번 중에서 지그재그로 선이 그어진 산무늬 같은 기하학 문양이 나

타나 있는 것은 특히 오래된 축에 속합니다. 이 작품들로부터 일본의 초기 단계 능직비단 직조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 **N-319-89-3: 황색 바탕 거북이 당화 연속 거북등무늬 능직비단 변죽 조각**

이 능직비단도 기하학 무늬가 들어간 것으로 연속되는 거북 등껍질 무늬 안에 귀여운 거북이와 디자인된 당화무늬가 평지변형능문룡(평직 바탕에 능직 무늬를 변칙적으로 직조함)이라는 기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능직비단은 쇼소인에서는 거의 유사한 사례가 보이지 않는 호류지 특유의 작품으로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 **N-319-108: 옅은 황록색 바탕 연속 마름모무늬 능직비단 변죽 조각**

마름모꼴을 여러 겹 겹쳐서 연속적으로 반복시킨 능직 문양입니다. 무늬를 잘못 짠 부분이 있어서 무늬 모양이 불규칙합니다.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고대의 무늬가 재미를 선사합니다.

#### **N-319-113: 옅은 홍색 연속 육각형 무늬 능직비단 변죽 조각**

거북이 등껍질 무늬를 나열한 듯한 문양의 능직비단입니다. 대략 7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N-319-161-1: 황색 바탕 산무늬 능직비단 변죽 조각**

#### **N-319-165: 황록색 바탕 산무늬 능직비단 변죽 조각**

삼각형을 연속으로 이어붙인 산무늬를 잘게 직조해낸 능직비단 변죽입니다. 평지부문룡(평직 바탕에 뜬실을 이용하여 무늬를 나타냄)과 평지능문룡(평직 바탕에 능직 무늬를 직조함) 등의 능직비단 중에서도 오래된 양식에 해당하는 기법이 사용되며, 일본 능직 무늬의 초기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